

#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출석 앞두고 정국 긴장 고조

### 지도부 당 결집 유도 검찰 맹공

### 검찰 출석 이후 민심 흐름 촉각

### 친문 사의제 이어 비주류 모임 출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8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이후, 형성되는 민심의 흐름에 따라 정국의 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재명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내년 총선 공천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내홍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 전하로 안부를 전하면서 지지 기반을 다지는 한편, 권리당원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폭압', '말살'과 같은 강한 단어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는 등 검찰 출석을 앞두고 당내의 단일 대오 형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당의 결집을 유도하는 한편 정부와 검찰에 대해 맹공을 가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헌법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공포 정치를 통치 수단으로 삼는 모습은 영락없는 독재의 모습"이라며 "군부독재에 이어 이제는 검찰독재의 얼굴이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한 설 명절 민심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잇단 소환 통보 등이 야당을 파괴하려는 탄압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이후의 민심의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민심의 흐름에 따라 정국 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민주당

의 지지율이 반등 양상을 보일 경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일정 부분 완화되면서 정국의 흐름이 민주당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민심의 중심에 '야당 탄압'의 프레임이 자리 잡을 경우, 민주당이 적극적인 반격에 나설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어차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제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장외투쟁 등에 나서면서 정국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비해 두 자릿수 이상 앞서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 쉽지만은 않게 보인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이 현재의 하락 국면을 유지하거나 더 빠질 경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민주당의 정치적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포스트 이재명 체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명(비 이재명)이나 중도 진영의 상당수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잦은 실정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나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원인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비명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민주당의 길'이 오는 31일 공식 출범한다. '민주당의 길'은 비명계 인사들이 구성한 '반성과 혁신'을 확대·개편한 모임으로 친문 맹형홍영표 의원, 86그룹의 이인영 의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서상석, 송갑석, 김승남, 조오섭, 서동용 의원 등이 참여한다. 지난 18일에는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정적연구 포럼 '사의제'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총리가 고문을 맡아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한동안 활동이 뜸했던 친문 싱크탱크 '민주주의 4.0'도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선거제 개편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도종환·전해철 등 현역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가운데)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이후 형성되는 민심의 흐름이 결국 정국의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지지율이 40% 이상을 기록하며 반등의 계기를 잡느냐, 아니면 30% 초반대로 밀리느냐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민주당의 진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맹탕 1월 임시국회...쟁점 법안 처리 무산

### 이재명 방탄·北무인기만 시끌

### 본회의 한번 못열고 끝날 듯

1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지 24일로 2주가 넘었지만 여야 대치 속에 '맹탕 국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방탄 국회'를 열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일일법 처리와 북한 무인기 사태 긴급현안질문 등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여당이 응하지 않아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달 9일 시작한 1월 임시국회는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접이한 입장차와 주요 인사의 해외 출장,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진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우선 야당이 임시회 소집 명분으로 강조해온 주요 법률 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제대로 논의 한번 되지 않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야에 소관 상임위원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열리지 않았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여야 쟁점 법안 협상도 제자리걸음만 걸었다.

본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2~21일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순방으로 국회를 비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14~21일)에 동행했다.

이달 7일이 활동 종료일이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17일까지로 열흘간 연장된 데다, 나흘간의 설 연휴도 법안 심사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작용했다.

이렇다 보니 이달 말까지 본회의를 한 번도 열지 못하고 1월 임시국회가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이같은 '맹탕 국회' 비판 속에서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공방은 설 연휴 이후 더 거세질 걸로 보인다.

여야는 설 민심이 자신들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26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28일)을 계기로 격렬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종료됐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한 대치도 예상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검찰 출석 앞둔 이재명 '대장동' 방어 논리 마련 진력

### 시민 위한 이익 환수 논리 다듬기

### 변호인과 서면 진술서 준비도 만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흘간의 설 연휴 기간, 오는 28일 검찰 출석에 대비한 전략 수립에 집중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박할 논리를 다듬는 거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18일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민간이 아닌 공공 개발을 해서 그 이

익을 조금이라도 환수하려고 노력했다"며 "(그 이익을) 성남시민을 위해 환수한 게 배임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세간에 제기된 술한 의혹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변호인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서면 진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데도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도 여러 질문에 '진술서 내용으로 같을거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면 검찰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도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의 소환 조사를 '정치 보복' 등으로 비판하면서 이 대표가 두 차례나 성실히 소환에 응하는 만큼 이제는 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의 압박이 강해진다"며 "야당 탄압 프레임도 힘을 받을 것"이라며 "당도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향후 선택지 중 하나로는 '장외투쟁'이 꼽힌다.

이태원 참사 대응과 예산 국회를 거치며 국회 밖으로 나가자는 목소리가 잠시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장외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외 투쟁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다만 장외투쟁과 같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경우 당내 여론을 결집하는 것은 속제로 남는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여전히 당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며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당의 리스크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2023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모집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모 집 인 원
인 문 사 회	신 학 과	23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0
사 법	유아교육과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6
<b>총 계</b>		<b>44</b>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사로(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2. 12. 29(목) ~ 2023. 1. 2(월)
- 전 형 일: 2023. 1. 9(월)

###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국제대학원	석사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3. 1. 25(수) ~ 2. 3(금)
- 전 형 일: 2023. 2. 6(월)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